담양군,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치매안심마을

나흘간 마을담장 벽화 그리기 및 환경정리

"주민 주도 다양한 사업 · 서비스 제공"

담양군 치매안심마을이 주민이 주도한 치매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마을 주민, 면사무소, 치매안심관리사, 자원봉사학생이 함께한 가운데 치매안심마을 마을담장 벽화 그리기 및 꽃 심기와 주변 쓰레기 청소 등 환경정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벽화그림은 희망메시지를 담은 해바라기와 함께 치매파트너 캐릭터인 단비 등을 담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모두가 합심해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치매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힘을 모았다.

또한 치매안심마을로 선정이 됐으나 인지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치매 관련 정보 제공과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마을에 주민 주도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 중국 지주시 경제사회발전협력전략 기본협정 체결

구례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안휘성 지주시와 자매결연 1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구례군 우호교류방문단 16명이 지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두 자매 결연도시 간의 관계 강화와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하여 진행되었고 8일 지주시에서 경제사회발전협력전략 기본협정도 체결하였다.

협정내용은 양 도시간의 선진 농업기술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농업 분야의 벤치마킹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전문인력을 상호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농업연수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두 지역의 스포츠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대회 개최시 선수단 파견, 스포츠 훈련 노하우를 공유하여 양 도시의 스포츠와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 도모키로 하였다.

아울러, 공무원 연수 및 교류 체제를 개선하여 인문 분야의 교류와 상호 발전 분야의 벤치마킹 및 특정 분야의 심도 있는 협력과 추진을 약속하고, 두 지역간 경제무역, 문화, 관광 및 청소년 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키로 협약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협정을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양도시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고흥군, 청춘 윈드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고흥군은 어르신들로 구성된' 청춘 윈드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11월 7일 오후 7시 종합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 400여명이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고흥군 청춘 윈드오케스트라는 2016년 11월 8일에 창단하여 63~83세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총 35명의 단원들이 올해로 3년째 활동하고 있다.

황혼의 나이에 전문음악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꾸준한 연습을 통해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지역의 각종 행사에 13회의 공연을 선보여 왔다.

이날 공연은 우리에게 익숙한 안동역에서, 고향역, 내 나이가 어때서 등 11곡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청춘 윈드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고흥군노인복지관은 "각종 공연을 통해 고흥을 알리는 도우미 역할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사업계획평가회서 교육생 미래 설계 지원

곡성군은 지난 7일 곡성명품농업대학 교육생과 관계 공무원, 평가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사업계획 평가회를 개최했다.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진행한 사업계획평가회는 곡성명품농업대학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생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와 심사를 통해 창의적인 농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4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4명의 교육생이 각자의 미래를 설계한 내용으로 평가회에 참여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사와 발효체험을 결합한 '노지 발효식품장 개설', '곡성의 특산물을 이용한 특산주 및 약선 음식 개발' 등의 사업계획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우수평가자로 선발된 2명에게는 다음연도 농업CEO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시민공감 이야기마당 개최

여수시는 8일 오후 여수문화홀에서 2019 시민공감 이야기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이야기마당은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여수, 민선7기 공약사항 점검' 을 주제로 그동안 권 시장의 공약사항 및 시정운영 활동 등에 대해 패널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토의는 문화관광, 상생경제, 나눔복지 분야 각 전문가를 초청해서 민선7기 공약사항과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돼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정을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패널로 참석한 민병인 여수관광발전협의회장의 섬 박람회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권 시장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시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시민들은 엑스포를 훌륭히 치러낼 역량이 있으므로 다함께 노력해 꼭 개최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화순 국화향연 '역대 최다' 흥행

누적 관람객 60만 예상

지난달 25일 개막한 '2019 화순 국화향연'이 역대 최다 누적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10일 폐막했다.

10일 화순군은 올해 누적 관람객 수가 지난해(약 52만)보다 8만 명 늘어난 6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화향연 중 역대 최다 누적 관람객 수로 지난해와 비교해 15%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미 지난 9일 오전에 지난해 누적 관람객 수를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었다.

역대 최고의 흥행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개막 3일 만에 관람객 15만 명을 기록했고, 주말이면 10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개화 절정기를 맞았던 3일에는 역대 1일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 관람객은 6만 6000여 명이었다.

국화향연이 열리는 야트막한 남산공원에 심은 1억2000만 송이 국화, 국화꽃으로 옷을 갈아입은 대형 조형물, 코스모스, 억새, 핑크뮬리 등이 어울려 장관을 선사하면서 관람객 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남산공원의 자연적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다양한 꽃을 심고 짜임새 있게 공간을 구성해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관람객에게 호평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과 비교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온 가족, 연인,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관람객 연령대가 낮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화순 국화향연은 지난 3일과 4일 우리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어 순위에서 한때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포털 검색어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올해도 역대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둔 것은 공무원은 물론 지역의 기관 ·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와 군민이 한마음으로 합심했기 때문이다"며 "올해 성과를 발판 삼아 화순 국화향연을 우리나라 대표 가을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